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4

“고객과 함께 달리는 축제마당 시원한 d맥주 시음기회 드려요”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

“시원한 맥주d! 깨끗한 소주 참이슬! 최고지점 광주지점! 지역민과 함께 파이팅!”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 (본부장 정재덕)의 제48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 출전 캐치프레이즈다.

하이트진로 정재덕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를 새봄의 기운을 만끽하며 시·도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해 왔다. 올해 3번째 출사표를 던진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 직원들은 이번 대회를

“지역민과 함께 뛰고 달리는 나눔의 축제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한달전부터 컨디션 조절은 물론이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시음차량 지원을 통해 대회가 끝난 후 ‘깨끗하고 시원한 d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나눔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

정재덕 본부장은 “새봄을 여는 길목에서 열리는 3·1절 전국 마라톤대회를 직원들과 하이트진로 정(情)나눔 참이슬 봉사단원들이 모두 나서 함께 뛰며 소통과 화합을 다지며 대회 후 시음행사를 통해 축제의 장으

로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은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대학생 60명과 직원으로 구성된 ‘하이트진로 정나눔 참이슬 봉사단’은 지난 2010년 조직패 현재 7기가 활동중이며 매월 2회씩 사회봉사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 교육, 건강, 사회봉사활동 등 정나눔 지역사랑 캠페인 일환으로 2010년도 1월부터 광주·전남 지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 2012년 12월



제48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 출전을 앞둔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올 판매목표 달성과 전원 완주를 다짐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광주지점 제공)

까지 3년에 걸쳐 조성된 사랑기금 2억원을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지역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했다.

또한 올해는 지역사랑 캠페인 기금 조성액을 늘려 2013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4년간 d맥주와 참이슬 소주 한병당 각각 2원씩 출연해 3억원 조성을 목표로 행사를 진행중이다.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은 통합 원년으로 ‘헌чан 도전과 열정’을 내세

우며 도약의 반전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3·1절 마라톤대회 출전을 통해 올해 하이트맥주와 참이슬 소주가 각각 판매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직원과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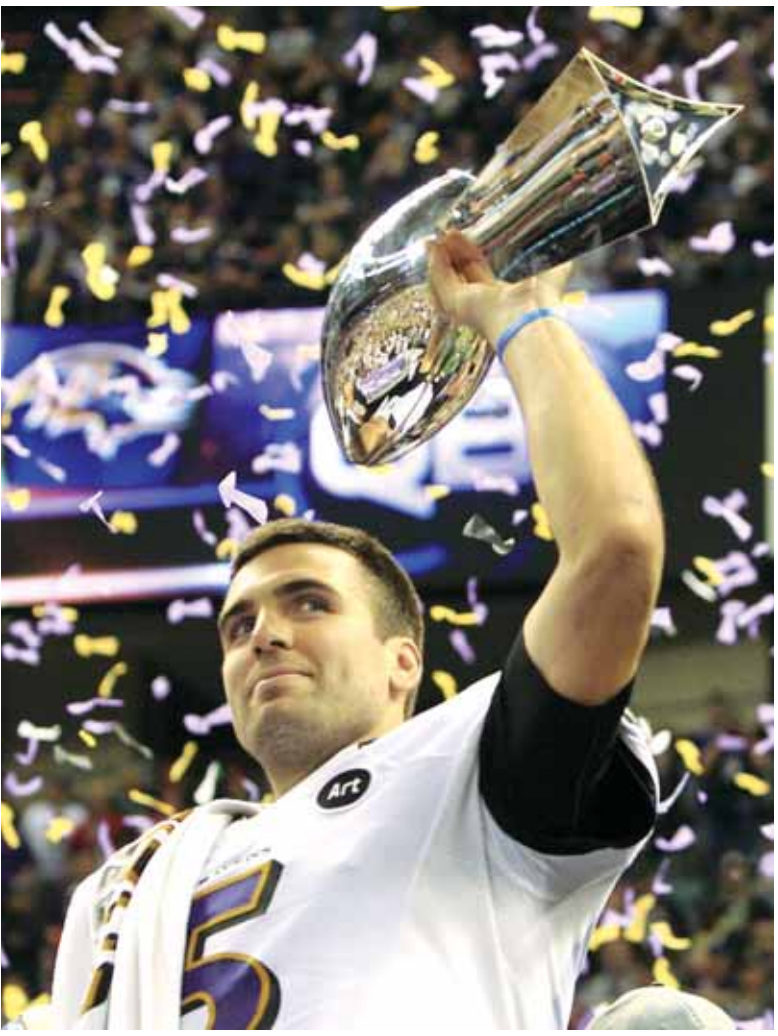
성동욱 하이트진로 광주지점장은 “올해 3회째 참여하는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는 한해의 목표달성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마음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라 됐다”며 “직원들도 마

라톤 대회를 통해 화합과 정을 나누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 지점장은 평소 조기축구 등으로 다져진 체력으로 올해는 반드시 상위 입상을 하겠다는 각오다. 이영주, 조영근, 박종호, 노광수 영업파트장들도 조기축구, MTB 동호회 활동으로 다져진 체력으로 내년 49회대회에는 풀코스를 뒤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전초전으로 하프코스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은 주류회사 특성상 거의 매일 음주를 하면서도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자기관리에도 활동, 1인 1동호회 활동을 해 꾸준한 체력관리를 하고 있어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완주를 자신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정나눔 참이슬 봉사단’도 시·도민과 함께 새봄의 기운을 만끽하며 즐거운 추억 만들기에 부풀어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4일 미국 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에서 최우수 선수(MVP)로 선정된 볼티모어 레이브스 쿼터백 조 플라코가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볼티모어 슈퍼볼 12년만에 우승

쿼터백 조 플라코 MVP

볼티모어 레이브스가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에서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49ers)를 누르고 12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볼티모어는 4일(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메르세데스 벤츠 슈퍼볼에서 열린 제47회 슈퍼볼에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

된 쿼터백 조 플라코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샌프란시스코의 추격을 따돌리고 34-31로 승리했다.

슈퍼볼이 생기기 전인 1950년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로 창단한 뒤 1996년 볼티모어로 연고지를 옮기며 에드거 앨런 포의 애상적인 시 ‘까마귀’로 팀 이름을 바꾼 볼티모어는 2001년 우승 이후 두 번째로 슈퍼볼 패권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연합뉴스

광주 FC, 철벽 수문장을 찾아라

중구 광저우=김여울 기자

윤기해·김지성·제종현 각축 골키퍼전담코치 영입해 조련

‘철벽방어’ 골키퍼가 광주 FC 패스 축구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1부리그 승격에 사활을 건 광주 FC는 박종문 골키퍼 코치를 영입하며 견고한 수비벽을 만드는데 공을 기울이고 있다. 골키퍼는 광주의 약점으로 꼽히는 포지션이지만 빠른 패스를 바탕으로 하는 여범규 감독의 ‘광(光)축구’의 핵심이다.

여 감독은 골키퍼를 중심으로 해서 빠른 패스로 차근차근 공격을 만들어 가는 플레이를 머릿속에 그려놓았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광주의 수문장으로 맹활약했던 박종진이 강원으로 이적하면서 주전 골키퍼 자리는 공석이 다. 그 자리를 놓고 광저우 캠프에서 윤기해(22)·김지성(25)·제종현(21)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세 선수의 프로경력을 합치면 1년. 윤기해가 유일하게 프로에서 경기를 뛰어본 2년차다. ‘말뚱’ 김지성은 금호고를 졸업한 뒤 동이대 그리고 용인 시청을 거쳐 올 시즌 프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신인 아닌 신인이고, 제종현도 숭실대를 졸업한 후 광주에 있는 루키다.

그만큼 명품 골키퍼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혹독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김지성에게 내셔널 리그에서 쌓은 내공으로 프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지성은 “열심히 하면 프로가 될



왼쪽부터 박종문 코치, 김지성, 윤기해, 제종현 골키퍼.

늘렸다. 거의 2배 이상의 훈련을 하면서 경쟁을 시키고 있다. 아직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체조건에는 뒤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면 좋은 골키퍼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무한 경쟁 중인 세 선수의 장점은 ‘민첩성’, ‘경험’, ‘패기’다.

윤기해는 민첩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 본능적인 움직임과 함께 긴 팔이 골키퍼로서의 매력을 더해준다.

윤기해는 “지난해는 다사다난한 해였다. 프로 데뷔라는 잊지 못할 경험도 했고 나 때문에 팀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성남전에서 내가 못해서 세 골이나 내줬는데 형들이 4-3으로 역전극을 펼쳐주기도 했었다”며 “훈련은 힘들지만 뿌듯하다. 전담 코치님이 계셔서 많이 배우고 훈련도 많이 하고 있다. 올해는 강등이라는 상황에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 많은 경험, 많은 경기에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김지성에게는 간절함과 경험이 있다. 대학 졸업 후 프로 진출에 실패했던 김지성은 내셔널 리그에서 쌓은 내공으로 프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지성은 “열심히 하면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잘할 자신은 있다. 자신은 있지만 아직 내가 경기에 나간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다. 훈련은 힘들지만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고쳐가고 있는 과정이다”며 “올 시즌 광주가 만나는 팀들은 내셔널 리그에서 경험을 했던 팀들이다. 상대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잘 풀이할 수 있다. 내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동료에게 많은 애기를 해주면서 승격에 함께 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막내 제종현은 패기가 무기다. 제종현은 “U리그가 끝나고 경기를 많이 쉬어서 감각이 떨어졌다. 살도 많이 찘었는데 몸무게를 많이 줄였다. 원래의 컨디션과 몸 상태를 빨리 찾겠다.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아마에서 골을 막다가 프로에 와서 해보니 공 구질 자체가 다르다. 많이 놀라고 배우고 있다. 훈련하는 것도 아마와는 확실히 다르다”며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와 대인 방에 능력이 장점이다.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ol@kwangju.co.kr

‘웃음 폭탄’ 여범규 감독

선수단 분위기 메이커 역할... “훈련은 재미있게”

어느 팀이나 분위기 메이커가 있다.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고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이가 있다. 막내급 선수들이나 벼살 좋은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임무다.

광주 FC에도 분위기 메이커가 있다. 구수한 입담과 상황에 따른 재치 있는 멘트, 막내 오도현도 주장 박병주도 아닌 여범규 감독이다.

3일 광주는 리아오닝 FC와 연습경기를 치렀다. 후반전 투입을 앞둔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자리를 한 관중석에는 본격적인 주전 경쟁의 시작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용한 관중석의 침묵을 깬 것은 여범규 감독이었다.

선수들이 움직일보다 말이 앞서자 “마우스 피스 11개 사와야겠어”라며 말을 던졌고 관중석에는 웃음보가 터졌다.

여 감독은 “말을 줄이고 집중해서 경기에 임하라”며 선수들을 독려했고 광주는 전반전 박헌과 테스트를 받고 있는 용병 티노의 골이 나오면서 승기를 잡았다.

열세에 몰리자 상대팀의 거친 플레이가 이어졌다. 경기 중간에 선수들이 한데 모여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긴장된 분위기를 깬 사람 역시 여 감독이었다. 매너 좋기로 유명한 임선영이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진정제 놔줘~”라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후반전에도 여 감독의 활약은 계속됐다.

심판의 불 선언을 놓고 양팀 선수들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자 “내가 정리 해줄게. 드로잉으로 가져”며 다시



여범규 감독

한번 웃음 폭탄을 날렸다. 여 감독은 유머와 함께 중간 중간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해 큰 목소리로 지적을 하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하며 경기장 분위기를 주도했다. 때로는 강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가’여 감독의 스타일이다.

훈련 시간에도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은 유감없이 발휘된다. 때론 눈썰미의 여 감독은 선수들에게 별명을 지어주고 장난을 치기도 한다.

전남 드래곤즈 수석 사설 선수였던 박종문 골키퍼 코치에게 ‘음삼이’라는 별명을 안겨줬던 여 감독은 골키퍼 김지성에게는 ‘달렁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 광양제철고 감독 시절 동의대의 연습경기 때 만났던 정진영에게 별명도 지어줬다.

여 감독의 유쾌함이 고된 캠프에 단비가 되고 있다. /광저우=김여울기자 wool@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